

『개역개정』 로마서에 나타난 ‘오직’의 번역에 관한 고찰

김태섭*

1. 들어가며

우리말 『개역개정』 신약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부사가 총 199회 사용된다. 그중에 로마서에는 ‘오직’이 총 20회에 걸쳐 등장한다(롬 1:17; 2:8, 13, 29; 3:4, 27; 4:13; 6:13; 7:13; 8:20, 26; 9:7, 8, 11, 16; 11:7; 12:2, 3; 13:14; 14:17).¹⁾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말 ‘오직’이 사용된 본문들의 그리스어 원문을 살펴보면 ‘오직’(only)에 해당하는 *μόνος, μόνον, κατά μόνας*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그러나’(또는 ‘그리고’)로 번역되는 *δέ*(롬1:17; 2:8; 3:4; 11:7)와 강한 역접 접속사 *ἀλλά*(2:13, 29; 3:27; 4:13; 6:13; 7:13; 8:20, 26; 9:7, 8, 11, 16; 12:2, 3; 13:14; 14:17)가 발견된다. 그렇다면 『개역개정』이 역접 접속사 *δέ*와 *ἀλλά*를 ‘오직’으로 번역한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현대 국어에서 ‘오직’의 의미 가운데 역접 접속사의 뜻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다음과 같이 ‘오직’을 풀이한다.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²⁾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은 ‘그러나’와 같은 역접 접속사의 의미를

*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ktaesup@puts.ac.kr. 이 논문은 2021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소논문의 분량 한계로 논의를 로마서에 국한했다. 그러나 *ἀλλά*나 *δέ*를 ‘오직’으로 번역한 사례는 신약 전체에서 발견된다.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오직”,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1. 6.

따로 덧붙이지는 않고, ‘오직’과 관련하여 다음 3개의 예문을 보여 준다.

오직 그녀만을 사랑한다.

그는 일 년 동안 **오직** 공부에만 열중했다.

그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오직** 먹고살기 위한 것일 뿐이다.

위에 열거된 예문들에서 ‘오직’을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로 대체할 수 있는 문장은 없다. 만약 여기서 접속사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했다면, 해당 예문에 선행 문장이 함께 제시됐을 것이다. 예를 들어 『표준국어대사전』이 접속사를 설명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제시한다. ‘우리는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선수 중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어제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결석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접속사(接續詞)는 말 그대로 문장을 이어 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예문에서 최소 두 개의 문장이 제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와 예문의 유형은 ‘오직’에 역접 접속사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등 우리말 주요 사전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내용이다.³⁾ 그렇다면 우리말 『개역개정』 로마서에는 왜 ‘오직’이라는 말이 역접 접속사의 번역어로 등장한 것일까? 이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나,⁴⁾ 아쉽게도 로마서의 번역과 관련된 학문적인 논문들이나 주석들은 현재까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⁵⁾ 이에 본 연구는 우리말 로마서 번역에 나타난 ‘오직’의 용례에 대해 문헌적·역사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30.).

- 3)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오직’을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1) (주로 ‘~만, ~뿐’이 붙은 명사와 함께 쓰여)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이. (예문) 그는 한평생 오직 아내만을 사랑했다. (2) 다른 것은 관계없이 전적으로. (예문) 이 일은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도 접속사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했다면, 예문에 선행 문장을 함께 제시했을 것이다.
- 4) 이효삼, “염기적인 ‘오직 믿음’은 없다”,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4466> (2021. 6. 30.).
- 5) 예를 들어, 조병수, “『신약전서』(1906년) 로마서의 번역 고찰”, 『성경원문연구』 29 (2011), 83-104는 『신약전서』(1906) 로마서의 역사적 배경과 번역의 특징(문법, 표현, 어순, 오역)을 다루고 있지만, 로마서에 나타난 우리말 ‘오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경민, “최초의 완역본 『신약전서』(1900-1904-1906)의 완성 과정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90 (2014), 67-99 역시 『신약전서』와 관련하여 거시적인 번역의 문제와 역사적 의미를 다루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로마서에 나타난 ‘오직’의 문제에 관한 언급은 없다.

2. 우리말 『개역개정』 로마서와 이전 역본들에 나타난 ‘오직’

주지하다시피 우리말 『개역개정』의 ‘직접적인’ 뿌리는 개화기 내한 선교사들이 번역한 역본들이다.⁶⁾ 조선 말기 내한 선교사들은 1893년부터 5인(언더우드[H. G. Underwood], 게일[J. S. Gale], 스크랜튼[W. B. Scranton], 아펜젤러[H. G. Appenzeller], 트롤로프[M. N. Trollope])으로 조직된 ‘성경번역자회(聖經翻譯者會)’(the Board of Official Translators, 이하 ‘번역자회’)를 구성하여 신약 27권의 번역에 착수한다.⁷⁾ 복음서부터 낱권씩 번역·간행하다가 1898년에는 『로마인서』가 출간되었고, 1900년에는 드디어 『신약전서』를 완간한다. 그러나 이 『신약전서』의 번역은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⁸⁾ 개정 및 재개정을 거쳐 1906년에 비로소 공인본 『신약전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이후 공인본 『신약전서』(1906)는 구약과 합본한 『성경전서』(1911)에 그대로 수록되었고, 다소간의 수정을 거치며 『성경개역』(1938), 『개역』(1952, 1961), 『개역개정』(1998, 개정 4판[2005])에 이르기까지 우리말 신약 성경의 모체가 되었다. 이러한 큰 흐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로마서 1:17의 주요 역본 간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세로쓰기로 된 역본들은 편의상 가로쓰기로 인용한다).

-
- 6) 주지하다시피, 당시 국내에서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에, 중국 심양(瀋陽)에서는 로스의 『예수성교전서』(1887)가 발간되었고, 일본에서는 이수정의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1885)가 출간되었다. 본 논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예수성교전서』인데, 내한 선교사 중에는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이를 일부 개정(改定)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예, 누가복음, 로마서). 그러나 결국에 내한 선교사들은 로스역의 폐기를 결정하고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게 된다.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4 (2010), 100-101. 왜냐하면 로스역은 평안도 사투리가 많아서 서울 등 국내 주요 지역에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숙, “언더우드를 가르치고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활동한 송순용”, 『기독교사상』 722 (2019), 148-149 참고. 따라서 오늘날 『개역개정』의 ‘직접적인’ 뿌리는 개화기 내한 선교사들의 역본들로부터 찾는 것이 타당하다.
- 7)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35-36 참고.
- 8) Ibid., 39-46. 애초에 번역자회는 우리말 신약성경 번역본을 총 5단계에 걸쳐 완성할 계획이었다. 먼저 개별 번역자가 27권을 나누어 한국인 조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 역본’을 만든다. 이것을 다른 번역자들이 회람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원 번역자가 이를 수렴하여 개인역을 수정하는데, 이것을 ‘임시 역본’이라고 한다. 그리고 번역자회가 모여 독회를 열고 검토를 거친 것을 ‘번역자회 역본’이라고 하며, 번역자회는 이를 상부 기관인 상임성서실행위원회에 송부한다. 이후 출판을 하여 반포한 것을 ‘시험 역본’이라고 하며, 이후 3년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통해 ‘공인 역본’을 완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 한글 성서 최초 완역 100주년의 역사신학적 의미”, 『Canon&Culture』 4 (2010), 89-90 참고.

『그리스어 원문』⁹⁾

δικαιοσύνη γὰρ θεοῦ ἐν αὐτῷ ἀποκαλύπτεται ἐκ πίστεως εἰς πίστιν,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ὁ **δὲ** δίκαιος ἐκ πίστεως ζήσεται

사역: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것[복음]에 계시되어 믿음[신실함]으로부터 믿음에까지 [이르나니], 이와 같이 기록된 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리라

『로마인서』(1898)

대개 하나님의 의를 복음 중에 나타내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느니 성경에 쓴 바와 같이 오직 옳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느니라¹⁰⁾

『신약전서』(1900)

대개 하나님의 의를 복음 중에 나타내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느니 성경에 쓴 바와 같이 오직 옳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느니라

『신약전서』(1906)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이와같이 성경에 써서 닐녔스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성경개역』(1938)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9) 본문에 인용된 그리스어 본문은 현재 가장 널리 통용되는 NA²⁸인데, 다음 괄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881년에 간행된 팔머판 그리스어 신약성경의 본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PG: δικαιοσύνη γὰρ θεοῦ ἐν αὐτῷ ἀποκαλύπτεται ἐκ πίστεως εἰς πίστιν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Ὁ δὲ δίκαιος ἐκ πίστεως ζήσεται). 팔머판 그리스어 신약성경은 영어성경 <제임스왕역>(KJV)을 개정한 <영어개역>(ERV)의 기반이 되었고, 이 <영어개역>은 국내 번역자회 선교사들의 번역에 중요한 저본(底本)이 된다.

10) 19세기 말 선교 초창기에는 신명(神名)에 관한 논쟁(턴주(天主) 또는 하나님)이 있던 시기였다. 1894년에 번역자회는 『마태복음』과 『수도행전』을 1,500부씩 간행하게 되는데, 1,000부는 ‘하느님’으로, 500부는 ‘턴주’로 신명을 표기해 인쇄했다. 임희국, “성경의 한글 번역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님 이름 논쟁” (장로회신학대학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2014), 100-101. 이러한 상황에서 1898년에 두 종류(턴주(天主)판과 하나님판)의 『로마인서』가 출간되었다. 턴주판(1898)은 다음과 같이 롬 1:17을 번역한다. “대개 턴주의 의를 복음 중에 나타내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느니 성경에 쓴 바와 같이 오직 옳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턴주’라는 신명 표기가 다를 뿐, **δὲ**를 ‘오직’으로 번역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리스어 표현	ὁμολογία 8:26	ὁμολογία 9:7	ὁμολογία 9:8	ὁμολογία 9:11	ὁμολογία 9:16	θεός 11:7	ὁμολογία 12:2	ὁμολογία 12:3	ὁμολογία 13:14	ὁμολογία 14:17
신약전서 (1900)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신약전서 (1906)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성경개역 (1938)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개역 (1952)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개역개정 (2005)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이상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로마인서』(1898)에서부터 그리스어 역접 접속사 *θεός*와 *ὁμολογία*의 번역어로 사용된 ‘오직’은 이후에도 주요 역본들에 줄곧 존치되어 오늘날 『개역개정』(4판, 2005)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사실을 통해, 『개역개정』 로마서에 나타난 역접 접속사의 번역어로서 ‘오직’은 그 뿌리를 개화기(開化期) 국어의 용례에서 찾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당시 내한 선교사들의 교리적 선이해인 ‘종교 개혁 모토’의 영향 (2) 중국의 한역(漢譯) 성경들의 영향 (3) 번역사회 선교사들이 참고했던 영어 성경 및 그리스어 성경의 영향 (4) 내한 선교사들이 편찬 및 사용한 영한·한영사전. 이러한 고찰을 통해 로마서 번역에 사용된 ‘오직’의 국어사적 뿌리를 찾고자 한다.

3. 종교 개혁의 모토(motto)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

주지하다시피 종교 개혁의 정신을 대표하는 모토에는 5개가 있다. ‘Sola Scriptura’(오직 성경), ‘Solus Christus’(오직 그리스도), ‘Sola Gratia’(오직 은혜), ‘Sola Fide’(오직 믿음),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¹¹⁾ 이 가운데 ‘Sola Fide’(오직 믿음)는 개신교의 구원관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널리 회자되는 대표적인 구호이다. 따라서 개신교인이라면 ‘오직’이란 부사에 교의적으로 매우 친숙하다. 특히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11) 서창원, “칼빈주의와 청교도 신앙”, 『신학지남』 83 (2016), 176.

신칭의(以信稱義, justification by faith alone)가 주요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¹²⁾ 개신교에서는 ‘Sola Fide’(오직 믿음)와 결부되어 이를 매우 중요한 서신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로마서가 개신교에서 번역될 때, 이러한 교리적 선이해가 번역에 반영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1522년에 독일어로 성경을 출간하면서 로마서 3:28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So halten wyrs nu, dass der mensch gerechtfertigt werde, on zu thun der werck des gesetzs, **alleyn durch den glawben**”(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행위들 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로워진다고 우리는 이제 생각한다[사역]). 여기서 관건이 되는 부분은 그리스어로 δικαιούσθαι πίστει ἄνθρωπον(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인데, ‘오직’(alleyn)에 해당하는 부사 μόνον 또는 형용사 μόνη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편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루터 본인이 로마서 3:28을 번역하면서 ‘오직’에 해당하는 독일어 ‘alleyn(allein)’을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이다.¹³⁾

루터와 유사하게 개화기 내한 선교사들이 로마서를 번역하면서 종교 개혁의 모토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보면, 이러한 추측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오직** 올흔 사람은 믿음으로 살니라”(『로마인서』 1:17), “**오직** 믿는 법으로 막었느니라”(3:27), “언약하신 거시 룰법으로 된거시 아나오 **오직** 믿음의 올흠으로 된 거시니라”(4:13). 이 본문들의 우리말 번역을 보면 종교 개혁의 구호 ‘Sola Fide’(오직 믿음)가 떠오른다.

그러나 이 구절들만 가지고 번역자회가 교리적으로 ‘오직’을 첨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오직’이 등장하는 다른 구절들은, 표현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종교 개혁의 모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오직 당을 지어”(2:8), “오직 룰법을 헝헝는 자”(2:13), “오직 속으로 유대 사람”(2:29), “오직 죽음에서 산 사람”(6:13), “오직 죄가 착흔 거스로써”(7:13),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씨라야”(9:7) 등. 이러한 번역들은 종교 개혁의 구호들과 분명 거리가 있다. 따라서 로마서의 ‘오

12) 로마서의 다양한 주제와 저술 목적은 J. A. Fitzmyer, *Romans* (New York: Doubleday, 1993), 103-143; R. Jewett, *Rom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81-91 참고.

13) 루터는 이 사실을 자신의 동료 벤체스라우스 링크(W. Linck)에게 보낸 서신에서 밝히고 있다. H. O'Connor, *Luther's Own Statements Concerning His Teaching and Its Results Taken Exclusively from the Earliest and Best Editions of Luther's German and Latin Works* (New York: Benziger Brothers, 1884), 22-25. 각주 13번과 관련된 본문의 내용은 필자가 「성서마당」에 기고한 글, 김태섭, “마태의 관점으로 보는 ‘오직 믿음’의 의미”, 「성서마당」 124 (2017), 63-64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직’을 교리적 의도가 반영된 번역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4. 한역(漢譯) 성경의 영향일 가능성?

1900년을 전후하여 발간된 우리말 신약성경은 내한 선교사들과 조선인 조사(助事)들의 합동 작품이었다. 조선인 조사들이 중국의 한역(漢譯) 성경들을 저본(底本)으로 우리말 성경의 초벌 번역을 작성하면, 선교사들이 이를 영어 및 그리스어 성경과 대조하면서 수정을 해 나갔다.¹⁴⁾ 따라서 조선인 조사들이 초벌 번역에 참고했던 한역(漢譯) 성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신약성경 번역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한역(漢譯) 성경에는 <대표역본>(代表譯本, The Delegates' Version, 1852)과 같은 문리체(文理體) 역본이 있었으며,¹⁵⁾ 구어체(官話體) 역본으로는 <북경관화역본>(北京官話譯本, 1872)이 있다.¹⁶⁾ 그리고 중국 최초의 ‘개신교’ 신약성경 <신천성서>(神天聖書, Morrison-Milne Version, 1823)는 그리스어의 접속사 또는 발어사 등을 비교적 다른 역본들에 비해 생략하지 않고 번역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 역본들의 로마서 1:17은 다음과 같다.

<신천성서>

蓋子之自信進信而顯神之義、如經云、義者以信而活。

(사역: 대개 사람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써 되고 산다)

<대표역본>

蓋上帝以義稱信者、於福音顯之、使人克信、如經云、義人以信得生矣、

(사역: 대개 상제께서 의로써 믿음이라 칭한 것은 복음에 드러난다. 사람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한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는다)

14)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39-46.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는 당시 조선인 조사들 6인(최병현, 조한규, 이창직, 정동명, 김명준, 홍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https://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3_3_1_3 [2021. 6. 30.]).

15)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 89 참고.

16) J. Ross, “Corean New Testament”,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4 (1883), 495. 우리말 성경에 끼친 <북경관화역본>(北京官話譯本)의 영향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김태섭, “『개역개정』 마태복음 1:21의 ‘백성’(λαός)과 21:43의 ‘백성’(ἔθνος)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45 (2019), 93-113.

<북경관화역본>

因為天主之義、在這福音上顯明出來、叫人信了又信、如經上說、義人因信得生。

(사역: 왜냐하면 천주의 의는 이 복음에 분명히 드러나 나타난다. 사람으로 하여금 믿고 또 믿게 한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표역본>과 <북경관화역본>은 그리스어 δε에 해당하는 접속사를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반면에 <신천성서>는 δε를 접속사 ‘而’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문맥상 순접(‘-고’ 또는 ‘그리고’)의 의미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역(漢譯) 성경들의 사례는 우리말 성경 『로마인서』(1898) 또는 『신약전서』(1900)에 등장하는 ‘오직’과는 거리가 있다. 로마서의 20개 본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어 표현	δε 1:17	δε 2:8	ἀλλά 2:13	ἀλλά 2:29	δε 3:4	ἀλλά 3:27	ἀλλά 4:13	ἀλλά 6:13	ἀλλά 7:13	ἀλλά 8:20
신천성서	而	생략	乃	然	而	乃	乃	乃	然	乃
대표역본	생략	생략	乃	생략	생략	생략	乃	생략	생략	蓋
북경관화역본	생략	凡	乃	惟	惟	생략	乃	惟	생략	乃

그리스어 표현	ἀλλά 8:26	ἀλλά 9:7	ἀλλά 9:8	ἀλλά 9:11	ἀλλά 9:16	δε 11:7	ἀλλά 12:2	ἀλλά 12:3	ἀλλά 13:14	ἀλλά 14:17
신천성서	乃	然	惟	乃	乃	乃	乃	乃	乃	乃
대표역본	생략	惟	惟	乃	乃	생략	생략	생략	惟	惟
북경관화역본	생략	惟獨	惟	생략	都是	惟	생략	생략	생략	只

이상의 표에서처럼 한역(漢譯) 성경들은 δε와 ἀλλά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표현(‘乃’, ‘然’, ‘而’, ‘惟’, ‘蓋’, ‘凡’, ‘都是’, ‘惟獨’, ‘只’)을 사용하거나 번역을 생략하고 있다. 간혹 몇 곳에서 ‘오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표현들(惟, 惟獨, 只)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조선인 조사들이 이런 다양한 한문 표현들을 모두 ‘오직’으로 번역했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말 ‘오직’의 등장 배경은 중국의 한역(漢譯) 성경보다 다른 곳에서 ‘더 직접적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5. 영어 및 그리스어 성경의 영향일 가능성?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자회 선교사들은 조선인 조사들의 초벌 번역을 영어 및 그리스어 성경과 대조하면서 수정을 해 나갔다. 그런데 우리말 로마서의 ‘오직’은 직접적으로 한역(漢譯) 성경들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오직’은 조선인 조사보다는, 선교사들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번역자회 선교사들이 번역을 최종 수정할 때 참고했던 영어 및 그리스어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893년 영국성서공회 한국 지부 총무였던 켄뮤어(A. G. Kenmure)가 영국 본부에 보낸 편지를 보면, 선교사들이 당시 활용했던 성경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하나의 그리스어 본문을 사용하기로 동의함. ‘공인본문’(Textus Receptus)과 일치되는 한도 내에서 일부 수정 권리를 가지면서 ‘영어성경 개역본의 저본이 된 그리스어 본문’이 번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임. 한국어에서 그 기초는 ‘매우 유용한 도움’이 될 것임.¹⁷⁾

여기서 말하는 “공인본문”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Erasmus)로부터 시작하여 1624년에 네덜란드의 엘제비어(Elzevir) 형제들이 출간한 그리스어 신약 본문을 말한다. 그리고 “영어성경 개역본의 저본이 된 그리스어 본문”은 1881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간행된 팔머(E. Palmer)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가리킨다.¹⁸⁾ 전자는 영어 <제임스왕역>(King James Version)의 저본이었고, 후자는 <제임스왕역>을 개정한 <영어개역>(English Revised Version, 1881)과 관련이 있다.¹⁹⁾ 우선 로마서 1:17의 <엘제비어판> 공인본문, <팔머판 신약성경>, <제임스왕역>, 그리고 <영어개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7)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35에서 재인용.

18)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36; 조병수, “『신약전서』(1906년) 로마서의 번역 고찰”, 86. 또한 https://en.wikipedia.org/wiki/Revised_Version 참고.

19) G. J. van Steenberg, “영어 성경 번역의 역사”, 김동혁 옮김, 『성경원문연구』 42 (2018), 181-184 및 E. Palmer, *H KAINH AIAΘHKH: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sed Version* (Oxford: Clarendon Press, 1881), v-viii(서문) 참고.

<엘제비어판> 공인본문(TR)

δικαιοσύνη γὰρ θεοῦ ἐν αὐτῷ ἀποκαλύπτεται ἐκ πίστεως εἰς πίστιν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Ὁ δέ δίκαιος ἐκ πίστεως ζήσεται

<팔머판 신약성경>(PG)

δικαιοσύνη γὰρ θεοῦ ἐν αὐτῷ ἀποκαλύπτεται ἐκ πίστεως εἰς πίστιν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Ὁ δέ δίκαιος ἐκ πίστεως ζήσεται

<제임스왕역>(KJV)

For therein is the righteousness of God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영어개역>(ERV)

For therein is revealed a righteousness of God by faith unto faith: as it is written, **But**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여기서 보면, <엘제비어판> 공인본문과 <팔머판 신약성경>의 로마서 1:17 에는 모두 **δέ**라는 접속사가 있다. 한편 영어로 번역할 때 <제임스왕역>은 이를 생략했고, <영어개역>은 ‘but’이라는 역접 접속사로 **δέ**를 옮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19세기 말 선교사들이 참고했던 그리스어 및 영어 성경 로마서 1:17에는 우리말 ‘오직’에 해당하는 ‘μόνος’(또는 ‘μόνον’)나 ‘only’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로마서의 20개 본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7	2:8	2:13	2:29	3:4	3:27	4:13	6:13	7:13	8:20
공인본문 (TR)	δέ	δέ	ἀλλά	ἀλλά	δέ	ἀλλά	ἀλλά	ἀλλά	ἀλλά	ἀλλά
팔머판 신약성경 (PG)	δέ	δέ	ἀλλά	ἀλλά	δέ	ἀλλά	ἀλλά	ἀλλά	ἀλλά	ἀλλά
제임스왕역 (KJV)	생략	but	but	but	생략	but	but	but	but	but
영어개역 (ERV)	but	but	but	but	생략	but	but	but	but	but

	8:26	9:7	9:8	9:11	9:16	11:7	12:2	12:3	13:14	14:17
공인본문 (TR)	ὡλλά	ὡλλά	ὡλλά	ὡλλά	ὡλλά	δέ	ὡλλά	ὡλλά	ὡλλά	ὡλλά
팔머판 신약성경 (PG)	ὡλλά	ὡλλά	ὡλλά	ὡλλά	ὡλλά	δέ	ὡλλά	ὡλλά	ὡλλά	ὡλλά
제임스왕역 (KJV)	but	but	but	but	but	but	but	but	but	but
영어개역 (ERV)	but	but	but	but	but	but	but	but	but	but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어 성경에 나온 **δέ**나 **ὡλλά**를 영어 성경 <제임스왕역>과 <영어개역>은 ‘but’이란 접속사로 번역하거나 이를 간혹 생략했다(롬3:4. 참고, <제임스왕역> 롬 1:17).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번역자회 선교사들은 이를 우리말 ‘오직’으로 번역했다. 이들은 모두 영어권 선교사들이었으므로, ‘but’이 역접 접속사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오직’이란 부사로 번역한 것이다. 심지어 로마서 3:4의 경우에는 영어 성경이 번역에서 누락시킨 **δέ**를 굳이 ‘오직’으로 옮기고 있다. 만약 한두 번 역접 접속사를 ‘오직’으로 번역했다면, 그것은 실수나 예외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번역’이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6. 번역자회 선교사들이 편찬한 사전들에 나타난 ‘오직’

역접 접속사를 ‘오직’으로 번역한 것이 실수가 아니라면, 당시에 번역자회 선교사들은 ‘오직’에 ‘그러나’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세기 말 천주교와 개신교 내한 선교사들이 편찬한 사전들을 보면, ‘오직’이란 표제어에 ‘그러나’의 의미를 첨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파리외방전교회(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의 리델(Felix-Clair Ridel) 주교가 편찬한 『한불즈던』(1880)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불즈던』은 최초의 한영·영한사전인 언더우드(Underwood)의 『한영즈던』(1890)²⁰⁾과 게일의 『한영

20) H. G. Underwood, 『한영즈던: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in Two Parts, Korean-English & English-Korean』 (London: Trübner & Co., 1890).

즈던』(1897)²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²²⁾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더우드와 게일은 번역자회의 핵심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한불즈던』에서 풀이하는 ‘오직’은 다음과 같다.²³⁾

오직, O-TJIK. 惟. Mais, au contraire, néanmoins, seulement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불즈던』은 우리말 ‘오직’에 ‘seulement’(단지, 오직)라는 뜻 말고도 ‘mais’(그러나), ‘au contraire’(반대로), ‘néanmoins’(그럼에도 불구하고)와 같은 역접의 의미도 함께 적시하고 있다. 『한불즈던』의 영향을 받아 10년 뒤에 간행된 언더우드의 『한영즈던』에서도 이와 유사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한영즈던』은 전반부가 한영사전, 후반부가 영한사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에서 ‘오직’과 ‘But’의 뜻풀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²⁴⁾

오직, 惟, Only, but, nevertheless

But, conj. & prep. 마는, 그러나, 오직, 만, 밧기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더우드의 『한영즈던』은 전반부 한영사전에서 표제어 ‘오직’에 ‘but’과 ‘nevertheless’라는 역접의 의미도 설명한다. 그리고 후반부 영한사전은 ‘but’이란 영어 접속사를 풀이하면서 ‘그러나’의 뜻 외에 ‘오직’으로도 번역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7년 후에 나온 게일의 『한영즈던』도 다음과 같은 풀이를 제공한다.²⁵⁾

21) J. S. Gale, 『韓英字典(한영즈던): A Korean-English Dictionary』(Yokohama: Yokohama Bunsha, 1897).

22) 『한영즈던』의 서문에서 언더우드(H. G. Underwood)는 다음과 같이 『한불즈던』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To the work of the French missionaries in their admirable dictionary, the author takes pleasure in acknowledging the assistance derived, especially in the Korean-English part, although he differs from them in so many points, both as to orthography and definition.” H. G. Underwood, 『한영즈던』, iv. 실제로 『한불즈던』과 『한영즈던』에서 우리말 표제어들을 설명하면서 사용하는 한자어의 일치율은 51.01%에 달한다. 이는 『한영즈던』이 『한불즈던』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 중에 하나이다. 이지영, “사전 편찬사의 관점에서 본 『韓佛字典』의 특징 - 근대국어의 유허류 및 19세기의 『國漢會語』, 『韓英字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문화』 48 (2009), 75-79 참고. 한편, 캐나다 출신인 게일(James S. Gale)은 불어에도 익숙했고, 자신의 사전 서문에서도 『한불즈던』을 참고했음을 밝히고 있다. James S. Gale, 『한영즈던』, ii.

23) Les Missionnaires de Coré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한불즈던: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Yokohama: C. Lévy, 1880), s.v., “오직”.

24) H. G. Underwood, 『한영즈던』, s.v., “오직”, “But”.

25) J. S. Gale, 『한영즈던』, s.v., “오직”, “惟”.

오직 *s.* 惟(*유) But; only

惟(오직) Only; but; and; namely. An initial particle. A copula. To think of; to care for

게일의 『한영즈던』은 한영(韓英)과 한영(漢英) 사전의 합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표제어 ‘오직’을 보면 ‘but’과 ‘only’라는 영어 설명이 나란히 적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자 ‘惟’를 풀이할 때도 괄호 안에 ‘(오직)’을 쓰고 그것이 ‘but’이라는 접속사의 의미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한불즈던』의 영향을 받은 언더우드와 게일의 『한영즈던』은 공히 ‘오직’과 ‘그러나’를 결부시키고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화기 내한 선교사들이 ‘오직’에 역접의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했음을 알려 주는 문헌적 근거이며, 애초에 로마서의 역접 접속사가 왜 ‘오직’으로 번역됐는지를 밝혀 주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내한 선교사들은 왜 ‘오직’에 역접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을까? 관련 사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전을 편찬할 때 도움을 주었던 조선인 조력자들의 제안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선교사들이 참고한 한자(중국어) 사전의 영향이다. 먼저 『한불즈던』 편찬에 도움을 준 최지혁(崔智赫)²⁶⁾과 언더우드의 『한영즈던』에 기여한 송순용(宋淳容)²⁷⁾ 등, 조선인 조력자들이 우리말 ‘오직’에 역접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를 선교사들에게 조언했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

6.1. 조선인 조력자들이 ‘오직’의 의미로 역접(逆接)을 제안했을 가능성

19세기 말 당시에 우리말 ‘오직’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 용례를 살펴볼 만한 한글 자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²⁸⁾ 그중에 시체(時體) 말을 비교적 잘 반영하는 신문을 중심으로 용례를 알아보려고 한다. 1898년에 창

26) 『한불즈던』에 수록된 우리말 표제어들의 글씨체는 최지혁의 것이다. 이경해, “파리의방 전교회와 조선의 만남”, 『人文科學研究』 17 (2011), 97-98 참고.

27) 『한영즈던』의 서문에서 언더우드는 송순용(宋淳容, Mr. Song Soun Yong)의 이름을 언급 하면서 ‘Ermmun’(언문[諺文])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밝힌다. H. G. Underwood, 『한영즈던』, iv. 송순용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 논문을 참고. 이숙, “언더우드를 가르치고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활동한 송순용”, 145-158.

28) 김형철, 『개화기 국어연구』(서울: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12-28은 개화기 당시 출간된 교과서, 신문, 번역 성경, 자전 등 여러 종류의 한글 문헌을 소개하고 있다.

간된 최초의 시사 주간지 「협성회회보」(協成會會報)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논설)가 실렸다.

우리가 정교하고 현량하게 만든 물건을 볼디경이면 그제쵸흔 사람의 지혜와 지조를 칭찬홀터 히나 그사람의 학문을 더욱 칭찬홀여야 올홀지라 웨 그러홀고 하니 그 사람이 학문이 아니면 그 지혜와 지조를 능히 일우지 못홀엿슬지라 그러홀되 학문이라 홀는것은 텃디간 활동홀는 만물중에 오직 사람 밧게는 능히 닥지못홀는 것이라.²⁹⁾

위의 예문은 개화기 당시 학문의 중요성을 피력한 논설의 일부이다. 본문 끝에 ‘학문이라 하는 것은 천지간 활동하는 만물 중에 오직 사람밖에는 능히 닥지 못하는 것이라’는 문장이 나온다. 여기에 사용된 ‘오직’이라는 부사는 ‘유일하게’라는 의미로, 현대 『표준국어대사전』이 정의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이라는 뜻에 부합한다. 이러한 ‘오직’의 용례는 개화기 당시의 신문이나 공문, 한글 서적, 역서(譯書)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³⁰⁾ 그렇다면 ‘오직’이 접속 부사(역접)로 사용된 사례는 있을까?

사실, 오늘날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에는 역접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직’은 문맥에 따라 ‘그러나’의 뜻도 암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다방면에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오직 연애에 소질이 없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자. 여기서 ‘오직’은 ‘유일하게’ 또는 ‘유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행 문장과 대조되어 ‘그러나’의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개화기 ‘오직’의 용례들 중에도 문맥에 따라 역접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 것이다. 최초의 민간 일간지였던 「미일신문」(每日新聞)의 기사에서 우리는 그 단초(端初)를 발견하게 된다.

경무령에서 이틀 십일 밤에 너부 훈령을 밧아 각방곡에 방을 붓쳐는 너 근일에 민회가 춤이라 칭홀고 통구에 기회홀니 (중략) 이런 훌홀 무리는 잡아 엄홀 증치홀 거시요 심상히 립왕홀 인민들과 시뵁들도 민회에 참례홀야 방텡홀기를 붓그러 홀지 안 홀니 이것도 쏘홀 실성 홀디 점점 물 드리는거시라 싱각이 이에 밧치딕 엿지 훌심치 안홀리요 오직 너

29) “론설”, 「협성회회보」(協成會會報) 1898. 1. 8. 5면.

30) 이처럼 ‘유일하게’라는 의미로 사용된 ‘오직’의 용례는 유서가 깊다.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전 ‘우리말샘’은 ‘오직’을 『표준국어대사전』과 동일하게 정의하면서, 15세기부터 사용된 그 용례를 보여 준다. 참고, 우리말샘, “오직”,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234770&viewType=confirm (2021. 6. 30.).

희 량인들은 각각 스스로 식롭게 하여 죄에 빠지지 말라고 하였더라³¹⁾

위의 기사는 당시 경무청의 훈령을 인용하면서 독자들에게 충성심[忠愛]을 빙자하여 정국을 혼란하게 하는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다(1898. 12. 28.). 여기서 마지막 부분을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이것 또한 실성한 데 점점 물드는 것이라. 생각이 이에 이르니 어찌 한심하지 않으리요. 오직 (B)너희 양인들은 각각 스스로 새롭게 하여 죄에 빠지지 말라고 하였더라.’ 이것은 한편으로 (A)불순분자의 선동에 휘둘리는 자들을 한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B)일반 양인(良人)들은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A)와 (B)는 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중간에 사용된 ‘오직’은 역접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사례에서도 ‘오직’을 역접 접속사로 볼 수 있다.

님군씩서는 빅성을 다샤림으로 써 의무(義務)를 삼으시고 신하는 님군을 돕기로써 덩흔 분의를 삼느니 폐하씩오써 다샤림을 구하기에 간절 호오심이 주림과 같흔것 궂스올뿐이 안이오라 오직 샤림을 쓰오신 즘에 은혜가 의을 이기시옵고 스랑호심이 엄함을 익이사 맞당히 좃칠일을 보셔도 흥상 참아 못 호오신 므음이 게오시니³²⁾

위의 내용은 1898년 10월 26일 자 「미일신문」에 실린 독립협회(獨立協會)의 상소문 중 일부이다. 여기서 두 개의 문장이 ‘오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옮기면 다음과 같다. ‘(A)임금께서는 백성을 다스림으로써 의무를 삼고, 신하는 임금을 도움으로써 정해진 도리를 삼으니 폐하께서 다스림을 구하기에 간절하심이 배고픔과 목마름 같습니다. 오직 (B)사람을 쓰실 때에는 은혜가 의를 이기고, 사랑하심이 엄함을 이겨서 마땅히 거절할 일을 보셔도 항상 참고 못 하시는 마음이 있사오니.’ 상소문에는 먼저 (A) 위정(爲政)자의 도리와 임금의 정치적 열정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B) 실제의 인사(人事) 문제에 있어서는 냉철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오직’도 대조를 뜻하는 역접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³³⁾ 1910년 3월 2일 자 「大韓每日申報」(대한미일

31) “잡보”, 「미일신문」(每日新聞) 1898. 12. 28. 2면.

32) “독립협회 지도상소소본”, 「미일신문」(每日新聞) 1898. 10. 26. 1면.

33) 1898년에 창간된 미일신문은 이듬해 4월 4일 재정문제로 중단될 때까지 총 279호를 발간하는데, 그중에서 ‘오직’은 총 15건의 기사에서 사용되었고, 그 가운데, 역접의 의미로도 볼 수 있는 용례는 총 3차례 발견된다. 본문에 인용된 2건의 기사 외에 다음의 기사도 참고, “김락괴 상소”, 「미일신문」(每日新聞) 1898. 12. 29. 2면.

신보)에 실린 1면 논설에도 이와 같은 맥락의 용례를 발견할 수 있다.³⁴⁾

대개 이 한국동포가 희미한길에서 방황하며 마귀에게 속박을받아 하
 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죄스구덩이에 섰지며 하님의 은혜를 니저브
 리고 화될길노 드러갈뿐이어늘 오직 하님은 양 빅머리중에 한머리라
 도 춤아 브리시아니하시고 불상히녁이시며 특별한 은혜를 느리샤

「大韓每日申報」는 당일이 ‘세계교회가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임을 소개하면서, 위와 같은 기독교적 메시지를 논설에 담았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오직’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두 개의 문장이 ‘오직’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는데, 앞의 문장은 ‘동포들의 방황과 죄상 및 타락’을 묘사하고, 이어지는 문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설명한다. 다시 말해 두 개의 문장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용된 ‘오직’ 역시 ‘그러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화기 당시 국어사전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³⁵⁾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오직’의 사전적 정의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상기한 용례들은 ‘오직’이 역접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준다.³⁶⁾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러한

34) “이날은 하님이 한국에 복을 누리시느날”, 「大韓每日申報」(대한 매일신보) 1910. 3. 2. 1면.

35) 이중언어 대역 유해류(類解類)와 『국한회화』와 같은 단순 어휘집을 제외하면 현대적 의미의 국어사전은 개화기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 국어학자 이병근은 『국한회화』를 국어사전 편찬의 태동기에 분류하고, 최초의 국어사전으로는 『말모이』(1911)를 꼽았다. 이병근,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 『국어생활』 7 (1986), 8-35. 『국한회화』에 대한 문화재청의 해제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79,05250000,11&pageNo=1_1_1_0 (2021. 6. 30.).

36) 고종 18년(1881년)에 반포된 「신사척사윤음」(辛巳斥邪論音)에서도 역접의 의미로 해석 가능한 ‘오직’을 발견할 수 있다. “슬푸다 저의 교라 하느 거시 스스로 뼈 하늘을 공경한다 하되 맞춘너 신령을 설만하오미오 스스로 뼈 착흔 거슬 권한다 하되 맞춘너 악흔 거슬 퍼지니 이는 금수만도 못하고 사훼와 갖흔즉 진실노 사릅의 성품 갖최인 재야 누가 그 가히 친압지 못하기를 짐시에 독과 갖트며 가히 갖가히 못하기를 역의 쏘는 것 갖들 줄을 아지 못하리요마는 오직 저의 서리고 미진 무리가 항상 쉼노홀 뜻이 있느니라”. 최근에 천주교 측에서 19세기 조선에서 반포된 4건의 척사윤음(斥邪論音)을 정리하여 번역·출간했는데, 이 부분의 현대 국어 번역을 다음과 같이 수록하고 있다. “아, 저들의 가르침이 스스로 하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 귀결은 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스스로 선을 권면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악을 전파시키는 것이다. 이는 진실로 금수만도 못하고 독사와 같은 것이니, 진실로 사람의 성품을 가진 자라면 누가 그것이 짐독(鳩毒)과 같아 가까이 할 수 없고 쏘는 물여우와 같아 근접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저 추악한 무리들은 항상 날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며”. 김규성, 조지형 譯, 『척사윤음』 (인천: 인천가톨릭대학교출

‘오직’의 의미를 직접 인지했을 수도 있으나, 그들의 한국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섬세한 단어 이해가 가능했을지는 의문이다. 그것보다는 당시 사전 편찬에 도움을 주었던 조선인 조력자들이 이러한 ‘오직’의 뉘앙스를 선교사들에게 제안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6.2. ‘오직’의 뜻풀이에 한자(중국어) 사전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

‘오직’에 역접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또 다른 가능성은 개화기 선교사들이 참고한 한자(중국어) 사전의 영향이다. ‘오직’은 의미상으로 ‘惟’, ‘唯’, ‘維’, ‘只’ 등의 한자와 연결될 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델의 『한불즈던』(1880)과 언더우드의 『한영즈던』(1890) 그리고 게일의 『한영즈던』(1897) 모두 ‘오직’을 풀이하며 한자 ‘惟’와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⁷⁾ 『한불즈던』의 서문에는 한자(중국어) 사전을 참고했다는 언급이 따로 없지만, 언더우드는 서문에서 윌리엄스(S. W. Williams)의 *A Syllabic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1874)를, 게일은 자일스(H. A. Giles)의 *A Chinese-English Dictionary*(1892)를 참고했다고 각각 밝히고 있다.³⁸⁾ 이 사전들이 풀이하는 한자 ‘惟’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윌리엄스 사전

惟 To consider, to think on, to plan; to care for; is or has, to consist in, to do or to be; just so, precisely; **an adversative particle, but, only;** in a series it denotes and, with; and so, only that (이하 생략)

관부, 2018), 130-131. 신사척사운음을 1925년에 불어로 번역·출간한 뮈텔(Gustave-Charles-Marie Mutel) 주교는 여기서 ‘오직’을 접속사 ‘et’로 번역한다. 불어 ‘et’는 문맥에 따라 순접과 역접을 표지하는 접속사이지만, ‘유일하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당시에 한국어에 능숙했던 뮈텔 역시 해당 문맥의 ‘오직’을 역접 접속사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37) 고종 32년(1895년)에 이준영(李準榮), 정현(鄭玟), 이기영(李琪榮), 이명선(李明善), 강진희(姜鎭熙)가 편찬한 조선어 어휘집 『국한회화』(國漢會話 또는 國韓會語)가 있다. 이것은 한글 단어 옆에 그 음가 또는 의미에 해당하는 한자를 단순 병기(併記)한 것으로 정식 국어사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직 유 惟”라고 적시된 항목을 통해, ‘오직’의 한자어 대역(對譯)을 ‘惟’로 보았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884년 청나라 정관응(鄭觀應)의 『易言』(이언)과 이를 번역한 『易言諺解』(이언언해)를 비교해 보면, 압도적인 빈도(67회 중 65회)로 ‘惟’가 ‘오직’으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단지 두 곳에서만 ‘維’가 ‘오직’으로 번역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권1, 論商務 항목; 권4, 論虛費 항목).

38) H. G. Underwood, 『한영즈던』, iv; James S. Gale, 『한영즈던』, ii.

자일스 사전

惟 To think of; to consider; to care for. **Only; but;** and; and so; namely.
An initial particle; also often used to introduce a parenthetical or subordinate clause in the sense of “but for …” or “with the exception of …” (이하 생략)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두 사전 모두 ‘惟’를 부사로 풀이할 경우 ‘only’와 함께 ‘but’을 나란히 병치한다. 이 점은 19세기 중국에서 간행된 대역 한자(중국어) 사전들에서 곧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모리슨(R. Morrison)의 화영사전 제4권 『五車韻府』(오차운부, 1819), 곤잘베스(J. A. Gonçalves)의 한포사전 『漢洋合字彙』(한양합자휘, 1833), 칼레리(Joseph-Marie Callery)의 중라사전 『字聲綱目』(자성강목, 1841)이 풀이하는 ‘惟’는 다음과 같다.

『五車韻府』

惟 To think; to consider; to plan, or scheme; to have; to be; is; **but; only that; only**³⁹⁾

『漢洋合字彙』

惟 **So, mas,** Pensar.⁴⁰⁾

『字聲綱目』

惟 **Solummodo. Sed.** Cogitare. Circumstantia. = Seulement. Mais. Penser. Circonstance.⁴¹⁾

위의 사전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惟’가 부사로 쓰일 경우 ‘오직’을 뜻하는 ‘only’(영어), ‘so’(포르투갈어), ‘solummodo’(라틴어), ‘seulement’(불어)와 역접 접속사 ‘그러나’를 의미하는 ‘but’(영어), ‘mas’(포르투갈어), ‘sed’(라틴어), ‘mais’(불어)도 함께 제시된다.⁴²⁾ 이러한 특징은

39) R. Morrison, 『五車韻府: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in Three Parts』 Part II-vol.1 (Macao: East India Company's Press, 1819), s.v. “惟”.

40) J. A. Gonçalves, 『漢洋合字彙: Diccionario China-Portuguez』 (Macao: Anno De, 1833), s.v. “惟”.

41) J.-M. Callery, 『字聲綱目: Systema Phonicum Scripturae Sinicae』 Pars Secunda (Macao: n. p., 1841), s.v. “惟”.

42) 이렇게 대역 한자(중국어) 사전들이 ‘惟’의 뜻으로 ‘오직’과 ‘그러나’를 병기하는 것은 사실 당연하다. 왜냐하면 19세기 때나 지금이나 중국에서 ‘惟’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개화기 내한 선교사들이 사전을 편찬하면서 ‘오직’에 ‘그러나’의 의미를 연결시킨 이유를 암시할 수 있다. 그들은 조선어가 중국 한자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직’을 풀이하면서 바로 옆에 ‘惟’라는 한자를 병기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말 ‘오직’을 이해할 때 한자 ‘惟’의 의미장을 고려했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 ‘惟’에 ‘오직’과 ‘그러나’의 뜻이 병존하는 것처럼, 당시에 선교사들은 ‘惟’를 매개로 우리말 ‘오직’에 역접의 의미가 맞닿아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제까지 내한 선교사들의 ‘오직’에 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한국어 실력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을 편찬했고, ‘오직’에 역접의 의미가 있다고 정의했다. 안타깝게도 관련 사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유를 확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이 본인들의 이해나 조선인 조력자들의 제안 때문일 수도 있고, 대역 한자(중국어) 사전들에 나타난 ‘惟’의 의미장에서 그들이 유추한 것일 수도 있다(혹은 여러 이유가 함께 작용한 것일 수 있다). 여하간 확실한 것은 오늘날 국어사전들과는 달리 언더우드와 계일은 우리말 ‘오직’에 역접(but)의 의미도 있다고 ‘사전적 정의’를 내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은 번역자회의 핵심 인사들이었다. 그리하여 번역자회의는 로마서의 역접 접속사 $\delta\acute{\epsilon}$ 와 $\alpha\lambda\lambda\acute{\alpha}$ 를 경우에 따라 ‘오직’으로 번역하였고, 이것이 오늘날 『개역개정』(4판, 2005)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7. 나가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개역개정』 로마서에 $\delta\acute{\epsilon}$ 와 $\alpha\lambda\lambda\acute{\alpha}$ 가 ‘오직’으로 번역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언더우드의 『한영증년』(1890)과 계일의 『한영증년』(1897)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모두 번역자회의 핵심적인 인물들로서 우리말 ‘오직’에 ‘그러나’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 흔적은 『로마인서』(1898)로부터 시작하여 『개역개정』 4판(2005)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다. 이처럼 개화기 내한 선교사들이 편찬한 사전들은 성경의 우리말 번역 연구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언더우드 또는 계일의 『한영증년』을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논문들은 현재 20편 정도에 불과하고, 학위논문도 10편 정도에 그친다. 그리고 그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百科)에서 ‘惟’를 검색하면, 그 기본적인 뜻(基本解釋)으로 ‘오직’(单, 只)과 ‘그러나’(但是)를 제공한다. <https://baike.baidu.com/item/%E6%83%9F> (2021. 6. 30.).

이 한국학, 국문학, 영문학, 사전학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앞으로는 국내 성서학 또는 성경 번역 분야에서도 개화기 내한 선교사들의 사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성경을 장차 개정할 때, **ὄζ**와 **ὄζα**를 ‘오직’으로 번역한 경우는 적절히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오직’은 역접의 의미로 쉽게 연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ὄζ**와 **ὄζα**를 접속사로 번역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주제어>(Keywords)

로마서, 오직, 역접 접속사, 성경 번역, 한영사전.

Romans, Only, Adversative, Bible Translation, Korean-English Dictionary.

(투고 일자: 2021년 7월 30일, 심사 일자: 2021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1년 10월 16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락과 장소”, 『미일신문』(每日新聞) 1898. 12. 29. 2면.
- “독립협회 지도상소소본”, 『미일신문』(每日新聞) 1898. 10. 26. 1면.
- “론설”, 『협성회회보』(協成會會報) 1898. 1. 8. 5면.
- “이날은 하나님이 한국에 복을 누리시느날”, 『大韓每日申報』(대한미일신보) 1910. 3. 2. 1면.
- “잡보”, 『미일신문』(每日新聞) 1898. 12. 28. 2면.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1. 6. 30.).
- 김규성, 조지형 옮김, 『척사운음』, 인천: 인천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8.
- 김태섭, “『개역개정』 마태복음 1:21의 ‘백성’(λαός)과 21:43의 ‘백성’(ἔθνος)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45 (2019): 93-113.
- 김태섭, “마태의 관점으로 보는 ‘오직 믿음’의 의미”, 『성서마당』 124 (2017): 62-75.
- 김형철, 『개화기 국어연구』, 서울: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서창원, “칼빈주의와 청교도 신앙”, 『신학지남』 83.2 (2016), 171-195.
- 이경해, “파리의방전교회와 조선의 만남”, 『人文科學研究』 17 (2011), 89-111.
-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 한글 성서 최초 완역 100 주년의 역사신학적 의미”, 『Canon&Culture』 4.1 (2010), 75-125.
- 이숙, “언더우드를 가르치고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활동한 송순용”, 『기독교사상』 722 (2019), 145-158.
- 이지영, “사전 편찬사의 관점에서 본 『韓佛字典』의 특징 - 근대국어의 유해류 및 19세기의 『國漢會語』, 『韓英字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문화』 48 (2009), 73-92.
- 유경민, “로스 번역본을 수정한 아펜젤러 『누가복음전』(1890)의 문법, 음운, 어휘 요소의 수정과 교체”, 『우리말연구』 36 (2014), 29-57.
- 유경민, “최초의 완역본 『신약전서』(1900-1904-1906)의 완성 과정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90 (2014), 67-99.
- 이병근,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 『국어생활』 7 (1986), 8-35.
- 조병수, “『신약전서』(1906년) 로마서의 번역 고찰”, 『성경원문연구』 29 (2011), 83-104.
-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4.2 (2010), 99-132.
- 판 스테인베르헨(van Steenberg, Gerrit J.), “영어 성경 번역의 역사”, 김동혁 옮김, 『성경원문연구』 42 (2018), 181-184.

- Callery, J.-M., 『字聲綱目: Systema Phoneticum Scripturae Sinicae』, Pars Secunda, Macao: n.p., 1841.
- Fitzmyer, J. A., *Romans*, New York: Doubleday, 1993.
- Gale, J. S., 『韓英字典(한영즈던): A Korean-English Dictionary』, Yokohama: Yokohama Bunsha, 1897.
- Gonçalves, J. A., 『漢洋合字彙: Diccionario China-Portuguez』, Macao: Anno De, 1833.
- Jewett, R., *Rom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 Les Missionnaires de Coré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한불즈던: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Yokohama: C. Lévy, 1880.
- Morrison, R., 『五車韻府: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in Three Parts』, Part II-vol.1, Macao: East India Company's Press, 1819.
- O'Connor, H., *Luther's Own Statements Concerning His Teaching and Its Results Taken Exclusively from the Earliest and Best Editions of Luther's German and Latin Works*, New York: Benziger Brothers, 1884.
- Palmer, E., *H KAINH ΔΙΑΘΗΚΗ: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sed Version*, Oxford: Clarendon Press, 1881.
- Ross, J., "Corean New Testament",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4 (1883), 491-497.
- Underwood, H. G., 『한영즈던: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in Two Parts, Korean-English & English-Korean』, London: Trübner & Co., 1890.

<Abstract>

A Reflection on the Translation of ‘오직’(only) in the NKRV Romans

Tae Sub Ki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usage of 오직 (only) in the translation of Romans. In the 4th edition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2005), 오직 appears twenty times as a Korean counterpart of the Greek adversative conjunctions like $\delta\acute{\epsilon}$ and $\alpha\lambda\lambda\acute{\alpha}$ in Romans, e.g., 1:17; 2:8, 13, 29; 3:4, 27; 4:13; 6:13; 7:13; 8:20, 26; 9:7, 8, 11, 16; 11:7; 12:2, 3; 13:14; 14:17. However, 오직 is generally defined in contemporary Korean dictionaries as *only* or *exclusively*, while they seldom include *but* in its semantic force. In fact, the usage of 오직 to translate the Greek adversative conjunctions began to appear from the one-volume edition of *Romans* (1898). This gives rise to the question why $\delta\acute{\epsilon}$ and $\alpha\lambda\lambda\acute{\alpha}$ were translated not as 그러나 (meaning *but*) but as 오직 (meaning *only*) in the first place.

To settle this issue, the present article considers the following topics: (1) the influence of the five solae of the Reformation; (2) popular Chinese Bibles such as the Delegates' Version, the Mandarin Chinese Bible and the Morrison-Milne Version; (3) the Greek and the English Bibles used by the Board of Official Translators; and (4) the Korean-English dictionaries compiled by H. G. Underwood and J. S. Gale. From this research, it is found that 오직 in Romans has little to do with the five solae, nor does it reflect influence from the Chinese, Greek or English Bibles used by the missionaries. Rather, it is the Korean-English dictionaries written by Underwood (1890) and Gale (1897) that commonly associated 오직 with the conjunction *but* as well as *only*. This explains why $\delta\acute{\epsilon}$ and $\alpha\lambda\lambda\acute{\alpha}$ were often translated as 오직 in the one-volume edition of Romans (1898), which has left its trace up to Romans in the NKRV (2005).